

청국장 기능성·우수성 알린다 남원시, 신중년 재취업 돕는다

순창군,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럼·성과전시회서 우수성과 발표

순창군이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의 R&D 우수 연구 성과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온라인 행사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R&D 성과 소개 및 전시 행사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포럼 및 성과전시회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과학기술로(路)', 오늘과 미래의 길을 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청국장의 신바이오틱스로서의 기능성과 발효 소재를 이용한 개발 제품 등 올해 달성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구성할 계획이다. 청국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R&D 성과의 경우 흥미로운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군이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의 R&D 우수 연구 성과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온라인 행사에 참가한다.

정도연 진흥원장은 "청국장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순창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발전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파생되는 우수 연구 성과를 학회나 유명 저널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청국장의 기능적 우수성과 다양한 제형의 개발 제품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종사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임실군, 환경미화원 등 46명 대상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임실군에서는 겨울철 실외 근로가 많은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종사원 46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환경미화원의 췌장, 배인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

사원들의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관련 자체 예산을 확보해 파상풍,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를 파악하여 접종을 추진했다. 작년에는 파상풍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청소차량에 안전스위치,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조끼, 안전화, 방한복 등 보호장구를 구입·배부했다.

심민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시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깨끗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내년도 시 세입세출 예산안 9163억원 의결 확정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18일 제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9,163억원으로 의결 최종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평기, 이하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총 39건에 걸쳐 36억8,895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 회의에 보고했다.

예결위는 심의과정에서 예산 투입의 경제성과 효과를 우선 고려하여 심사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물론 건전재정 확립에도

노력했으며,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사업 등은 국비지원 사업일자리도 시비 부담을 고려해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전평기 예결위원장은 "이번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남원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21개 사업이 선정돼 6억6,0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1월 중에 참여자 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퇴직한 신중년(5060세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시민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중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신중년들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행정·홍보·마케팅·서비스 등 해당 업무분야 관련 경력 3~5년 이상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참여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시급 1만원~1만5,000원 및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는 ▲남원사랑상품권홍보일자리, ▲청소년방과후 상담지원, ▲도시가roma 정비사업 현장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매니저, ▲작은도서관 북코디 등 지역 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다.

남원시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단절 없이 활용에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내년 상반기 개장

순창군이 지난 18일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조성한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실외형 롤러스케이트장은 넓이가 1,513㎡ 규모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롤러스케이트 전용 트랙과 연습용 공간, 관리실(휴게실) 등을 갖춘 소형 스포츠 전용시설로 만들어졌다.

군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시설보다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다. 군은 롤러스케이트장이 들어설 부지가 다소 협소했지만 실용적인 시설로 만들고 자 타 지역 시설을 적극 벤치마킹하면서 설계를 보완해 청소년에 적합한 맞

춤 놀이시설로 탄생시켰다.

또한 군은 롤러스케이트장 조성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1층에 가상현실 스포츠게임실이 이달 중 완료되면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달까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며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청소년은 무료이며 25세 이상 성인인 2,000원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전문 스케이트장 부재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하고 문화와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북도 환경분야 평가서 2관왕 달성

임실군이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각종 평가에서 높은 사업성과를 내며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또 한번의 수상소식을 전했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전라북도의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분야에서 91%라는 높은 징수 실적을 달성하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분야에 있어 2관왕을 달성하며 전북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는 생활성연소 저감 이행,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 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주요사업 집행, 정부 주요시책 추진 5개 분야 16개 지표를 토대로 전북도가 종합 분석·평가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청정임실의 면모를 과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50개 마을에 300대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24시간 범죄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50개 마을에 300대의 마을방범용 CCTV 설치했다.

이 사업을 위해 남원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마을 출입로와 우범지역 등 생활안전 취약장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카메라를 교체했다.

이로써 절도범들의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수사단서 및 증거를 확보하는데 마을 방범용 CCTV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등의 미귀가 사건이나 실종사건 발생 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마을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오수역 불법 촬영카메라 합동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 오수지구대는 관내 오수역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역무원 등과 합동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근절 강화를 위해 오수지구대는 오수역 역무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오수역 공공화장실 등 범죄 우려지역을 랜즈탐지기와 적외선탐지기를 이용 합동 점검을 추진, 오수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이인영 서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불법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촬영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